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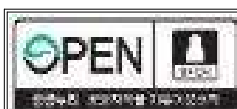
 국토교통부		보도 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 12. 6(목) / 총 1매(본문 1매)
담당 부서	철도건설과	담당자	• 철도건설과장 임종일, 기술서기관 이창훈 • ☎ (044) 201-3950, 3951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남북철도 착공식 김정은 위원장 참석 가능성 보도 관련

- 남북철도·도로 연결 착공식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은 별개의 사안이며, 착공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남북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사안으로서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.
- 착공식 개최일자, 장소, 주빈 등 행사계획은 북측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행사장소로 언급된 판문점, 개성, 도라산은 단순한 예시로서 향후 북측과 협의하여 장소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.
-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김정렬 차관의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다면 남북간 뜻 깊은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표현한 것으로서,
- 연내 착공식 개최를 위해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차분히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머니투데이 등 12.5) >

- ◆ 이달 남북철도 착공식, 김정은 위원장 참석 가능성 높아
- 착공식 장소로 판문점, 개성, 도라산역 등을 검토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이창훈 서기관(☎ 044-201-39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